
I. 전망 배경

- 2011년 유럽 재정위기로 세계경제 회복이 지연되고 있으나, 2012년에는 동 재정위기가 해결 기미를 보일 것이므로 하반기부터 점차 회복되기 시작할 것으로 전망됨.
 - 2011년 세계경제는 유럽 재정위기로 상고하저(上高下低) 형태의 성장 추이를 보일 것으로 예상됨.
 - 하반기 세계경제 성장률은 재정위기가 은행위기로 전이되고 있는데다 신흥국 경제성장도 둔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상반기보다 낮은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보임.
 - 2012년 세계경제는 유럽 재정위기가 어느 정도 해결되면서 상저하고(上低下高) 형태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됨.
 - IMF에 따르면 2012년 세계경제는 유럽 재정위기의 여파로 상반기 경기 회복은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으나, 하반기에는 재정위기가 해결되면서 경기가 점차 개선될 것으로 봄.
 - 그러나 2011년과 2012년 세계경제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 7년(2001~07년)의 평균 성장률 4.2%를 하회할 것임.
 - 2012년 재정지출 여력 부족으로 인한 유럽경제의 침체 가능성과 금융불안 해결 지연, 부동산 거품 우려로 인한 중국경제의 경착륙 가능성 등으로 경기 상방리스크보다 하방리스크가 더 클 것으로 판단됨.

- 유럽 재정위기가 2012년 하반기에는 해결 가능할 것이라는 점을 전제로 하면 2012년 국내경제도 상저하고(上低下高) 형태의 성장 추이를 나타낼 것으로 보임.

- 2012년 상반기 국내경제는 유럽 재정위기와 주요국의 재정지출 감소로 인한 세계경제성장 둔화에 따라 수출 증가율이 하락하고 가계부채 부담 증가에 따라 민간소비도 부진할 것으로 보임.
 - 2012년 소비자물가는 2011년과는 달리 원자재 가격 안정, 소비심리 위축, 기저효과 등으로 상승세가 둔화될 것으로 전망되나 인플레이션 기대심리가 불식되지는 않을 것임.
 - 2012년 하반기 금융시장 불안이 다소 해소될 것을 전제하여 시장금리 상승이 예상되고 있으나, 경기둔화에 따른 중앙은행의 정책금리 인상은 제한적일 것이기 때문에 시장금리 상승폭은 미미할 것임.
 - 2011년, 2012년 국내경제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 7년(2001~07년) 평균 성장률 및 잠재성장률 4.3%를 크게 하회하는 등 국내경제가 세계경기보다 상대적으로 더 빠르게 냉각될 것으로 보임.
 - 한편, GDP와 GNI 성장률 간의 격차 확대로 인해 실제로 느끼는 체감경기는 더욱 나빠지고 있음.
- 2012년 보험산업은 저금리 환경과 「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(이하 「근퇴법」이라 함)」의 시행으로 저축성보험과 퇴직연금의 고성장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함.
- 개정된 「근퇴법」 시행에 따른 중간정산 요건 강화 및 개인형퇴직연금(IRP) 설정 허용으로 퇴직연금시장의 고성장이 2012년에도 지속될 것으로 보임.
 - 2012년 생명보험산업은 금융불안 완화, 「근퇴법」 시행, 노후소득 수요 증대로 변액연금과 퇴직연금의 고성장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.
 - 한편, 손해보험산업은 저금리 환경 속에서 소득공제 한도 400만 원 상향 조정과 「근퇴법」 시행으로 저축성보험 비중이 큰 장기손해보험과 개인 및 퇴직연금 등 장기성보험 중심의 성장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.

- 그러나 2012년 시장금리 상승은 미미한 수준에 그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현재와 같은 공시이율경쟁이 지속될 경우 이차역마진 발생이 우려됨.

- 2012년 보험산업을 둘러싼 제도 및 감독환경 변화로는 다음과 같은 점에 주목해야 할 것임.
 - 첫째, 2012년 보험설계사 선지급 수수료 체계가 변경될 것으로 예상됨.
 - 「개인정보보호법」 시행을 비롯하여 「금융소비자보호법」 제정을 추진하는 등 소비자보호 강화 추세가 지속될 것임.
 -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음.
 - 둘째, 글로벌 금융시장 불확실성 상존으로 자본규제 및 시스템리스크 관리가 강화될 전망이며, 보험사기 단속 및 불공정거래 감시 등도 강화될 것으로 보임.

- 이에 본고는 이러한 대내외 경제 및 보험환경 변화에 대한 전망을 전제로 2012년 보험산업 관련 주요 성장지표와 환경변화에 대응할 경영과제를 제시함.